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Retirement Planning by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김 순 미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양 정 선

Dept.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Soon-Mi, Kim

Dept.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ung-Sun, Yang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IV. 분석결과의 해석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management styles and retirement plan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mong respondents, systematic managers, feeling managers, analyzing managers, and holistic managers were respectively 20.1%, 19.5%, 30.8% and 29.6%. Sever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total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Within the group of retirement planner, analyzing manager held the first place, whereas holistic manager ranked the first in non-planner group. Retirement planning age which is appropriate for starting to plan, the degree of systematic retirement planning, and life expectancy had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I. 문제의 제기

인간의 안전목적은 새로운 행동상황과 변화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욕구수준과 목표달성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달성된 안전수준은 불안전요인의 새로운 등장과 그 요인을 제거하려는 안전경향의 능동화가 새로운 안전요구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절대적 상태의 안전이 목적이 될 수 없다(김순미, 1987). 따라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에서 인간행동과 결부된 불확실성은 일상생활에서 나름대로의 기술을 발달시키거나 주어진 가능성속에서 기본적인 불안전요인을 둔화시킴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상태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문숙재, 1983 ; 김순미, 1987 재인용). 가정경제 측면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재무관리이며, 재무관리는 재정적 목표, 가계의 자원과 환경, 가계의 재정적 체계의 구성요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Edwards, 1988).

가계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재정적 목표는 재정적 복지의 향상이며, 가계 재무관리를 위한 구체적 하위목표는 건전한 재정상태(financial health), 합리적인 지출계획(spending your money wisely), 주택 및 부동산의 소유 및 임차(home and other real estate), 보험계획(insurance program), 투자 포트폴리오(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 은퇴계획(retirement and estate planning)등을 들 수 있다(Churchman, 1979 ; Stillman, 1984). 이러한 재무관리의 하위목표는 각기 개별적인 범주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역동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계획 및 재무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다른 목표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은퇴계획은 단기에 완성되거나 단기적 회복이 어려운 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은퇴계획은 최근들어 가계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후기로 갈수록 재무계획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며, 특히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가계 재무계획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Hefferan, 1981 ; Godwin & Carroll, 1986 ; 범

수인, 1992 에서 재인용).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김연정, 김순미(1991), 정은주, 문숙재(1992) 등의 연구와 같이 체계이론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체계이론은 관리과정상에서 인지요소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과 관리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지유형은 심리사회적 하위체계나 인적 하위체계의 부분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하위체계는 관리적 하위체계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작다. 따라서 인지적인 접근방식을 위해 보다 정교화된 가족체계 관리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져온 가계 재무관리이론을 인지이론과 접목시켜 조명한 Prochaska-Cue(1993)의 연구에 기초하여 재무관리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그리고 은퇴계획자와 비계획자와의 비교를 통한 은퇴계획자의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전통적인 재무관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재무관리의 이상적인 모델에 근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비체계적 재무관리 접근 방식을 살펴 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변화를 계속적으로 수정하여 가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재무관리 유형이 모든 사람에 대한 최적의 과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Prochaska-Cue (1993)의 문제제기에 동의함으로써 출발하며, 이에 대한 동의는 은퇴계획에 대해서도 일관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은퇴계획의 표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재무관리 유형의 특성에 따른 은퇴계획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Prochaska-Cue(1993)의 모델에 근거하여 재무관리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을 살펴 보며, 셋째, 은퇴계획자들과 비계획자들과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계획 및 재무관리, 그리고 재무상담 분야에 교육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체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이론과 인지이론에 기초한 재무관리 유형

기존의 가계 재무관리의 연구는 주로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Titus, Fanslow & Hira(1989)는 체계적 접근으로 가계관리를 언급하면서 투입은 목표 및 사건에 대한 요구와 이용가능한 인적 불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환과정은 가계의 실제 재무관리로 구성되며,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재정적 목표의 충족여부와 자원의 최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산출은 지불능력, 순자산, 만족감으로 표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 주관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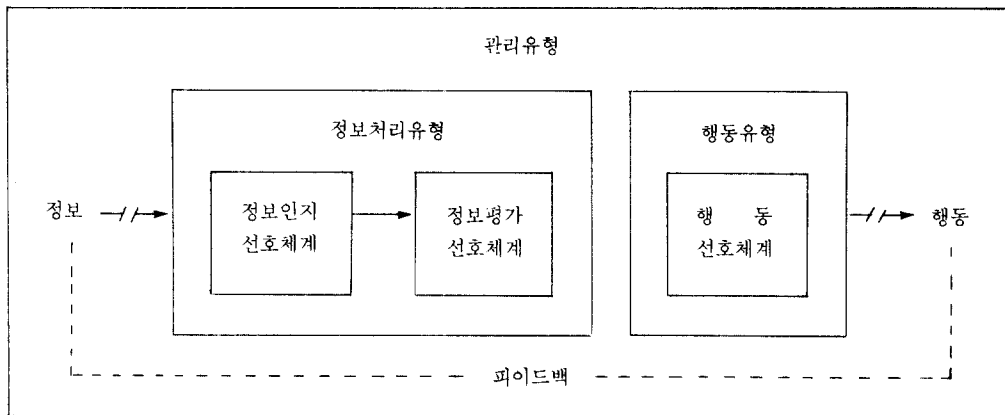
개인의 재무관리유형 모델을 조사하고, 그러한 개인의 재무관리유형 모델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Prochaska-Cue(1993)의 연구 역시 Deacon & Firebaugh(1988), Gross, Crandall & Knoll(1981), Rettig(1987)의 가족체계관리 모델과 인지유형이론, 특히 Mckenny & Keen(1974)의 정보처리유형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Prochaska-Cue(1993)의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적 역할을 하는 인지유형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이해하고, 종합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Messik(1976)에 따르면 인지유형은 인지내용이나 인지수행상의 기술적 수준과는 구별되는 인지방식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유형때문에 환경에 접근하는 방식,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정보처리 방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Prochaska-Cue(1993)는 가족체계 모델과 Mckenny & Keen(1974)의 인지유형 모델로부터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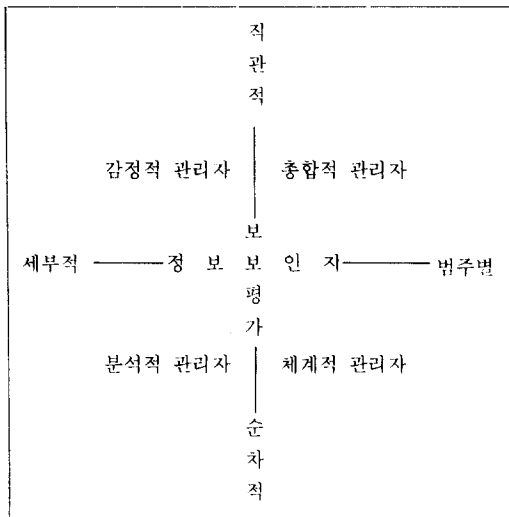
첫번째 중요한 선택은, <그림 1>의 첫번째(//)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정보를 고려할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된 정보는 인지체계속으로 투입되어 그 사람에게 의해 선호되는 정보처리유형에 의해서 지각되고 평가된다. 정보인지와 정보평가에 대한 선호체계가 행동에 대한 선호체계와 결합되며, 두번째 중요한 선택은 전형적인 방식(관리유형에 의해 정해지는)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는 정보인지와 정보평가의 두 차원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은 정보를 인지할 때, 새롭고 다듬어지지 않은 정보, 세부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큰 덩어리 형태의 정보를 범주별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정보평가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또



(그림 1) 관리연속모델(Prochaska-Cue, 1988)

는 탐색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재무관리자는 <그림 2>와 같이 4개의 관리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정보를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감정적 관리자, 세부적으로 인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분석적 관리자, 정보를 범주별로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체계적 관리자, 그리고 범주별로 인지하면서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종합적 관리자이다.



(그림 2) 인지적 재무관리 유형 모델
(Prochaska-Cue, 1988)

Prochaska-Cue(1993)는 모델 검증에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총 64문항중 14문항이 요인1에, 요인2에는 6문항이, 요인3에는 9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중 요인1은 분석적 관리유형을, 요인3은 종합적 관리유형을 나타내며, 요인2는 해석이 불가능한 요인이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새로운 견해, 즉 사람들은 전통적인 재무관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적 접근을 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변화를 계속하여 수정하는 관리를 수행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 가계 재무관리상의 은퇴계획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관리 연구에 따르면 형성기나 확대기의 초기단계 가족은 주로 내구재 구입, 적절한 보험자산, 가족들의 소비욕구 준비 등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축소기나 은퇴기의 후기단계 가족은 은퇴후의 수입에 대한 준비가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가족생활주기 단계중 은퇴기가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형식을 갖추는 기록상의 예산수립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한달이상의 장기계획이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더불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은퇴기의 경우 장기계획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은퇴기의 예산수립은 다른 가족생활주기와는 실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예측가능한 소득 및 지출유형을 지니고 있어 예산수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Davis & Carr, 1992)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Weagley & Gannon(1991)은 투자자의 자산과 가족생활주기가 투자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축, 주택, 보험, 그리고 은퇴투자의 범주에 대한 투자자의 자산분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은 연령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한정되고, 은퇴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는 시점까지만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은퇴기를 대비하여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증가율은 저축이나 주택투자에 비하여 은퇴투자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연령이나 가족생활주기 요인은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에 대한 가계의 요구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는 생활주기에 따라 투자위험이 증가되지만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이 감소되는데(weagley & Gannon, 1991), 이것은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해를 다시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Cohen and et al., 1982 ; Donnelly, 1985 ; 정은주, 1992 에서 재인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기는 기대할 수 있는 큰 수입도 없지만 지출이 축소되므로 오히려 생활이 안정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과거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였던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지출하거나 저축 재산 자체를 증식하면서 생활계획을 세운다(김병주, 1980 : 범수인, 1992 에서 재인용). 또한 은퇴기에는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부담, 여가 및 취미 활동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저축수단의 선택시에는 안전성이 있는 자산(범수인, 1992)을 고려하게 된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사회보장, 개인적인 연금, 가능한 저당자본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은퇴후의 저축목표 설정과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사회보장 및 연금혜택이 자리잡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나 계산 및 통제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은퇴계획자들과 비계획자들의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가계의 재무관리 및 은퇴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은퇴기 이전의 가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월평균 총가계소득, 가족 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의 남성과 여성을 선정하

였다. 1994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33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4)

변수	집 단	은 퇴 계 획	
		계획집단 빈도(%)*	비계획집단 빈도(%)
연 령	29세 이하	11 (7.1)	32 (19.9)
	30 - 39세	28 (18.2)	65 (40.3)
	40 - 49세	70 (45.5)	52 (32.3)
	50세 이상	45 (29.2)	12 (7.5)
학 령	중졸 이하	8 (5.2)	6 (3.7)
	고졸	46 (29.6)	34 (21.1)
	대졸 이상	101 (65.2)	121 (75.2)
직 업	무직	20 (13.0)	16 (9.9)
	판매,서비스,생산직	25 (16.2)	23 (14.3)
	사무직	40 (26.0)	50 (31.1)
	전문기술직	35 (22.7)	47 (29.2)
	관리직, 전문직	34 (22.1)	25 (15.5)
총가계 소 득	130만원 이하	23 (14.84)	24 (14.91)
	131-200 만원	46 (29.68)	53 (32.92)
	201-270 만원	25 (16.13)	44 (27.33)
	271만원 이상	61 (39.35)	40 (24.84)
응답자 개 인 소 득	100만원 이하	26 (19.7)	48 (32.7)
	101-150 만원	50 (37.9)	57 (38.7)
	151-200 만원	26 (19.7)	23 (15.7)
	201만원 이상	30 (22.7)	19 (12.9)

* 각 항목의 빈도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2) 용어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가계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개인소득은 응답자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한정하였다.

재무관리 유형은 Prochaska-Cue(1993)가 개발한 문항중 22문항을 일부 수정하고, 연구자가 작성한 6문항을 합하여 5점 Likert Type의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정은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645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의 체계성은 조직, 조정, 평가의 원리에

따라 계획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측정도구로써, 5점 Likert Type의 5분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Cronbach's α 계수는 .920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계획의 연령은 아직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은퇴계획을 세워야 하는 직정시기로 생각하는 연령이며, 기대수명은 자신이 예상하는 가능한 생애기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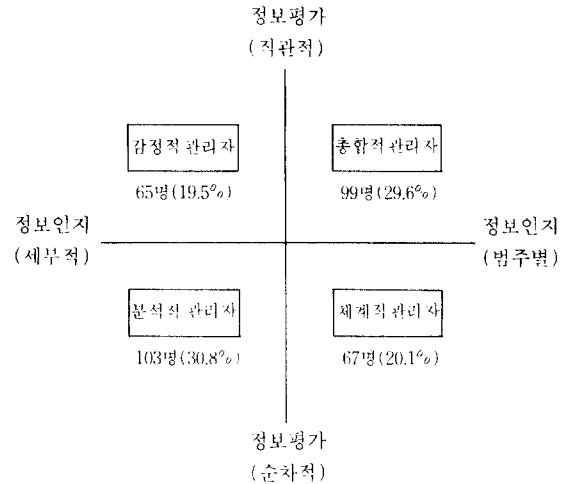
3.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 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 유형, 그리고 재무관리 유형별 은퇴계획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F-test로 검정하였고, 각 변수별 하위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재무관리 유형의 일반적 특성

재무관리 유형은 인지기론과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크게 정보인지와 정보평가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척도검정을 기친 Prochaska-Cue(1993)의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된 16분항의 정보인지 차원은 24점부터 74점까지 분포하였으며, 총 12분항으로 구성된 정보평가 차원은 17점부터 52점까지의 분포를 이루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정보인지와 정보평가의 차원 각각에 대해 정상분포를 이루었으므로 두 차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재무관리 유형, 즉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종합적 관리자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체계적 관리자 67명(20.1%), 감정적 관리자 65명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 유형(N=334)

(19.5%), 분석적 관리자 103명(30.8%), 그리고 종합적 관리자 99명(29.6%)로 나누어졌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자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연령별 재무관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30대에서 종합적 관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집단에 대해서는 모두 분석적 관리자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출 이상의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적 관리자의 유형이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3번째 순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출자의 경우 정보를 범주별로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통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상 더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므로, 정보를 범주별로 인지하고 빠른 속도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재무관리자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으며, 총가계소득의 경우 13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가장 많은 관리자 유형은 체계적 관리자와 분석적 관리자였으며, 271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종합적 관리자인 것으로

〈표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 유형

재무관리유형		체계적 관리자	총합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계
사회경제적 특성						
연 령	29세 이하	8(16.67)	12(25.00)	14(29.17)	14(29.17)	48(100.00)
	30 - 39세	12(12.77)	39(41.49)	24(25.53)	19(20.21)	94(100.00)
	40 - 49세	34(25.37)	38(28.36)	43(32.09)	19(14.18)	134(100.00)
	50세 이상	13(22.41)	10(17.24)	22(37.93)	13(22.41)	58(100.00)
		$\chi^2 = 19.15^*$		d.f. = 9		
학 령	고졸 이하	34(31.48)	18(16.67)	41(37.96)	15(13.89)	108(100.00)
	대졸 이상	33(14.60)	81(35.84)	62(27.43)	50(22.12)	226(100.00)
		$\chi^2 = 24.62^{***}$		d.f. = 3		
직 업 무직	판매,서비스,	9(20.45)	13(29.55)	17(39.64)	5(11.36)	44(100.00)
	생산직	17(32.08)	8(15.09)	21(39.62)	7(13.21)	53(100.00)
	사무직	15(16.67)	32(35.56)	23(25.56)	20(22.22)	90(100.00)
	전문기술직	13(15.48)	30(35.71)	23(27.38)	18(21.43)	84(100.00)
	관리직,전문직	13(21.31)	15(24.59)	18(29.51)	15(24.59)	61(100.00)
		$\chi^2 = 18.92$		d.f. = 12		
총가계 소 득	130만원이하	18(33.96)	8(15.09)	18(33.96)	9(16.98)	53(100.00)
	131-200만원	24(22.64)	27(25.47)	36(33.96)	19(17.92)	106(100.00)
	201-270만원	11(15.28)	27(37.50)	21(29.17)	13(18.06)	72(100.00)
	271만원이상	14(13.59)	37(35.92)	28(27.18)	24(23.30)	103(100.00)
		$\chi^2 = 17.87^*$		d.f. = 9		

나타났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의 차이는 정보평가 차원에 있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보평가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재무관리 유형과 은퇴계획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여부는 〈표 3〉과 같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성이 동일하였고, 총합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관리자와 감정적 관리자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각각

60.32%, 58.42%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따라서 은퇴계획은 정보평가의 연속적 차원보다는 정보인지 차원을 기축으로 하여 정보를 세부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은퇴계획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은퇴계획자 155명중에서 분석적 관리자가 59명(38.06%)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162명중에는 총합적 관리자가 66명(40.74%)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즉 정보를 순차적으로 평가하면서 세부적으로 인지하는 재무관리자가 은퇴계획을 가장 많이 세우고 있었으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범주별로 인지하는 재무관리자들이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무관리 유형에 따라 은퇴계획연령, 은퇴계획 체계성, 기대수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재무관리 유형별 은퇴계획 여부

재무관리 유형	은퇴계획자	은퇴비계획자	계
체계적 관리자	29	29	58
	9.15	9.15	18.30
	50.00	50.00	
	18.71	17.90	
감정적 관리자	38	25	63
	11.99	7.89	19.87
	60.32	39.68	
	24.52	15.43	
분석적 관리자	59	42	101
	18.61	13.25	31.86
	58.42	41.58	
	38.06	25.93	
총합적 관리자	29	66	95
	9.15	20.82	29.97
	30.53	69.47	
	18.71	40.74	
계	155	162	317
	48.90	51.10	100.00

$$X^2 = 19.81, p < .001, d.f. = 3$$

은퇴계획 연령은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계획을 착수해야하는 적정시기를 질문한 내용이다. 은퇴계획 연령을 가장 낮게 계획하고 있는 집단은 감정적 관리자였고, 분석적 관리자들은 은퇴계획 연령을 가장 높게 정하고 있었다. 이는 감정적 관리자들이 상대적으로 은퇴계획 program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은퇴계획을 보다 빨리 착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표 4〉 재무관리 유형별 은퇴계획

재무관리 유형	은퇴계획		은퇴계획연령		은퇴계획체계성		기대수명	
	평균(N)	D	평균(N)	D	평균(N)	D	평균(N)	D
체계적 관리자	50.63(24)	A	14.00(59)	B	72.20(49)	B		
감정적 관리자	45.31(26)	B	15.55(65)	A	76.15(59)	A		
분석적 관리자	50.77(39)	A	16.06(102)	A	76.93(83)	A		
총합적 관리자	48.30(60)	B	13.16(95)	B	74.51(85)	B		
	F=2.86*		F=10.22***		F=6.14***			

+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5, ** p < .01, *** p < .001

은퇴계획의 체계적인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은퇴계획 체계성은 은퇴계획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5점부터 은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25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14.72점으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의 체계성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분석적 관리자집단이었는데, 즉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정보를 인지하며, 정보평가를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재무관리자들이 은퇴계획을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평균이하의 집단은 체계적 관리자집단과 총합적 관리자집단이었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볼 때, 이 두 집단은 감정적 관리자집단 및 분석적 관리자집단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계획의 체계성을 크게 두 차원에서 보면 정보평가 차원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정보인지 차원에서 보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정보를 과거 경험에 비추어 범주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무관리자들보다는, 많이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한 그대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보를 인지하는 재무관리자들이 은퇴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퇴계획은 자신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즉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사한 결과, 분석적 관리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을 가장 길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은퇴계획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집단이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분석적 관리자들은 감정적 관리자집단과 그 성격이 유사하였으며 나머지 두 집단과는 이질적인 성향을 보였다. 기대수명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예상했던 대로 은퇴계획의 체계성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기대수명을 보다 길게 예상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은퇴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집단이었다.

3. 은퇴계획집단과 비계획집단의 특성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 유형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이 모두 정보평가 차원을 기준으

<표 5> 은퇴계획 집단과 비계획 집단의 비교

변수 집단	연령 평균(N)	교육수준 평균(N)	개인소득 평균(N)	금융자산 평균(N)	실물자산 평균(N)
계획 집단	44.12(154)	14.71(155)	165.64(132)	13174.47(132)	43928.57(133)
비계획 집단	37.44(161)	15.20(161)	141.36(147)	3494.84(126)	22112.31(130)
	t = 6.77***	t = -1.85	t = 3.03**	t = 2.79**	t = 2.98**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은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계획집단의 연령은 44.12세로써 계획을 세우지 않는 집단의 37.4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 은퇴계획 집단의 평균은 165.64만원으로서 비계획 집단의 141.36만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p<.01의 수준에서 모두 은퇴계획 집단이 비계획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에 따른 자산축적의 결과로 보여진다. 실물자산의 경우, 계획집단이 비계획 집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자산은 4배가 넘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은퇴를 계획하는 집단은 평균연령 40대이후이므로 이들은 비계획 집단인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실물자산을 갖고 있으며 자녀출가나 은퇴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자산 축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무관리 유형은 크게 체계적 관리자, 감정적 관리자, 분석적 관리자, 종합적 관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조사대상자 총 334명 가운데 각각 67명(20.1%), 65명(19.5%), 103명(30.8%), 99명(29.6%)로 구분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총가계소득과 관리

로 성향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즉, 학력이 높고 총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정보평가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은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계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 여부에 차이가 없었고, 종합적 관리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29명으로서 세우지 않는 사람 66명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적 관리자와 감정적 관리자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각각 60.32%, 58.42%로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계획은 정보평가의 연속적 차원보다는 정보인지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를 세부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은퇴계획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감정적 관리자들이 은퇴계획 연령을 가장 낮게 계획하고 있었고, 분석적 관리자들은 은퇴계획 연령을 가장 높게 계획하고 있었다. 은퇴계획의 체계성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분석적 관리자집단이었는데, 즉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인지하며,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정보평가를 하는 재무관리자들이 은퇴계획을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의 경우 분석적 관리자가 자신의 수명을 가장 길게 예상하고 있었고 이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체계적으로 은퇴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셋째, 은퇴 계획집단과 비계획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은퇴 계획집단의 연령이 보다 높게 나

타났고, 교육수준의 경우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 은퇴 계획집단의 소득평균이 비계획집단의 소득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모두 은퇴 계획집단이 비계획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에 따른 자산축적의 결과로 보여진다.

도시가계의 재무관리 유형과 은퇴계획에 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적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무관리 유형을 규명해 주는 척도는 prochaska-Cue(1993)의 연구에 기초하였으나, 이 척도 역시 분석직 관리자와 종합적 관리자의 두 요인만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다른 두 관리자 유형에 대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판별척도의 정교성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무관리 유형을 판별하는 척도의 정교화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은퇴계획에 대한 가정학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 유형에 따라 은퇴계획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보고자 하였으나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조사에 머물렀다. 따라서 은퇴를 대비한 적립금, 유산에 대한 계획 등 은퇴를 위한 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폭넓은 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해결된다면 도시가계의 재무관리 및 은퇴계획에 관한 연구는 보다 합리적인 재무관리와 은퇴계획의 구체적인 지침 및 그 단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김순미(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100.
- 3)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 4) 범수인(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 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투자행동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정은주(1992). 위험대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정은주·분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19-236.
- 8) Davies, J.P.(1981). Uncertain Lifetime, Consumption, and Dissaving in Retirement. JPE 89(3), 561-577.
- 9) Davis, E.P. & Weber, J.A.(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CP 1, 41-51.
- 10) Davis, E.P. & Carr, R.A.(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CP 3, 3-16.
- 11) Edwards, K.P.(1988). Using a System Framework for Organizing Family Financial Planning. JCA 22(2), 319-332.
- 12) Hurd, M.D.(1987). Savings of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ER 77(3), 298-312.
- 13) Prochaska-Cue, K.(1993). An Exploratory Study for a Model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 FCP 4, 111-134.
- 14) Scannell, E.(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CP 1, 1990, 133-146.
- 15) Titus, P.M., Fanslow, A.M. and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ERJ 17(4), 309-317.
- 16) Weagley, R.O. &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CP 2, 131-154.